

"실천하기 쉬운 에너지절약 방안 홍보하겠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우리 모두가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에 맞게 또 기업은 기업대로 지구 온난화 방지에 대비하듯이 저는 민간인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에너지절약이 지구온난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기후변화협약대응 홍보대사로 위촉된 KBS 황정민 아나운서의 소감이다.

1993년 KBS 공채 19기 아나운서로 현재 'VJ특공대'와 '황정민 FM대행진'을 진행중인 황정민 아나운서가 기후변화협약대응 홍보대사로 선정된 것은 우연만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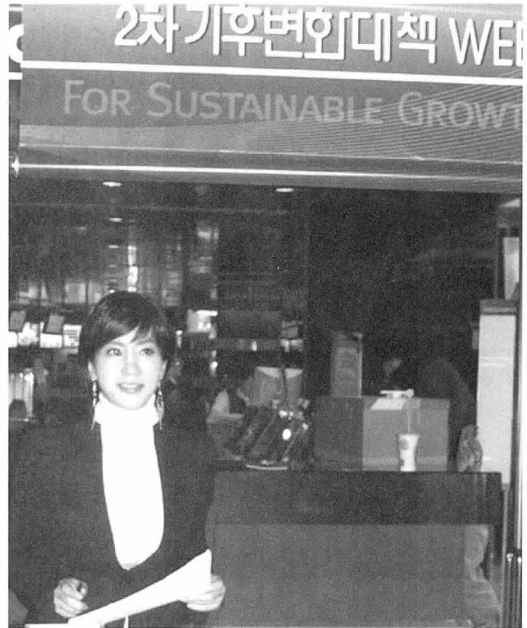
“학창시절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YMCA 환경연합에서 벌이는 여러 활동에 홍보요원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환경에 관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 홍보요원의 역할이 중요했었는데 이처럼 또다시 홍보대사역할을 맡게 되니 새로운 기대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황정민 아나운서는 기후변화협약대응 홍보대사로 임명되기 전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이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깊은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사실 전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지만 요즘처럼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두려운 마음이 큼니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이니 교도의정서니 등등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와 같은 민간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들은 일반시민들에게 기후변화협약대응에 관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여왔지만 낯설고 생소한 단어들로 쉽게 어필되지는 못했다.

“저는 보다 쉽고 간단하게 방송과 행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예정입니다. 다행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반인들과 만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직업 때



문에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홍보대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황정민 아나운서는 아침 7시에 방송되는 '황정민 FM대행진'에서 제2회 기후변화협약대응 WEEK 행사를 특유의 재미있는 말투로 청취자들에게 소개하고 영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냉장과 여닫는 횟수를 줄이고 승용차요일제를 지켜야 한다는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현재는 이상기온현상이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지만 다음 세대부터는 본격적인 이상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들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고는 그때 가서 에너지절약이니 기후변화협약이니 등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제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황정민 아나운서는 앞으로 방송경험과 방송인으로서의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협약대응 홍보에 정부·시민단체와 국민들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